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 참조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따라가 보세요.

바나바: 대가를 치르는 격려

바나바는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할 때 그를 받아들였고, 안디옥 사역에 참여시키며 함께 여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관대함과 격려뿐 아니라 심각한 의견 충돌도 보여 주어, 독자들이 그를 완벽한 인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의 섬김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옛 원수를 위한 자리 마련하기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구브로 출신 레위인 요셉으로 처음 소개하며, 그가 밭을 판 돈을 공동체에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이후 신자들이 과거의 박해자를 두려워할 때 그는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 말합니다. 이러한 환영은 사울의 변화된 삶에 관한 증언과 연결됩니다. 바나바는 영적 변화에 대한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태도가 아니라 관대함과 분별력 있는 옹호의 모범을 보입니다.

행 4:36-37 · 행 9:26-30

안디옥을 굳게 세우고 밖으로 나아가기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꾸준히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어서 안디옥 공동체는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그들의 여행에는 환영과 박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자신들에게 향하는 숭배를 거부합니다. 선교는 사자들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사람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부릅니다.

행 11:19-26 · 행 13:1-3 · 행 14:8-18

신실함을 지우지 않는 의견 차이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중단하는 일에 바나바도 휩쓸렸다고 보고합니다. 사도행전은 이후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려갈지를 두고 바울과 크게 다투었고, 그 뒤로 각자 여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사건도 영구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어 내는 이야기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동역자들을 정직하게 권면하고 인내로 성장시키도록 초대하며, 복음이 어떤 지도자의 명성보다 크다는 점을 지켜 줍니다.

갈 2:11-14 · 행 15:36-41

성경 참조

행 4:36-37 · 행 9:26-30 · 행 11:19-26 · 행 13:1-3 · 행 14:8-18 · 갈 2:11-14 · 행 15:36-41

출처

-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실라: 어려움 속의 격려

실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이자 예언자로서 회의의 소식을 안디옥에 전하러 동행했고, 이후 바울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첫 인사에 나오는 실루아노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사도행전이 두 이름의 형태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신뢰할 만한 목소리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편지를 안디옥으로 전하러 가도록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실라를 포함합니다. 그와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예언자로서 신자들을 길게 권면합니다. 이들이 직접 함께함으로써 이방인의 참여에 관한 공동체의 결정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메시지는 고립된 문서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설명하고 굳게 세우며, 공동체가 그 실천적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행 15:22-35

고난 속의 동행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뒤 실라를 선택합니다. 빌립보에서 두 사람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 지진, 간수의 위기, 그 집안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로마 시민권과 공개적인 인정을 요구한 사실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공권력의 부당한 대우를 괜찮다고 여기거나, 고난이 개인적 실패의 표시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 15:40-41 · 행 16:19-40

서신 뒤의 관계망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바울, 디모데와 함께 실루아노를 언급하고, 고린도후서는 그들의 공동 선포를 회고합니다. 이는 선교를 홀로 일하는 영웅의 사업이 아니라 공동 사역으로 읽도록 돕습니다. 실루아노를 실라와 동일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책임 있는 소개는 이름에 관한 추론과 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을 구별합니다. 격려와 여행, 인내로 곁에 머무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살전 1:1 · 살후 1:1 · 고후 1:19

성경 참조

행 15:22-35 · 행 15:40-41 · 행 16:19-40 · 살전 1:1 · 살후 1:1 · 고후 1:19

출처

-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디모데: 먼 거리에서도 이어지는 신뢰할 만한 돌봄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공동체들을 여행하며 돌본 신뢰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의 검증된 섬김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며, 소식을 전하고 신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이 선교의 핵심 사역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더 넓은 선교에 참여하기

사도행전은 디모데가 처음 참여한 장소를 루스드라로 제시하며, 그곳 신자들이 그를 바울에게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한 결정은 그 지역의 선교 상황 안에서 서술됩니다. 이를 그리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일과 함께 읽어 보세요. 상황은 서로 다르며 어느 경우도 할례를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행 16:1-5 · 갈 2:1-5

신뢰할 만한 대표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 그가 돌아왔을 때 격려가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디모데의 진실한 관심과 검증된 섬김을 칭찬합니다. 이 언급들은 책임과 관계, 신뢰를 보여 주지만 완전한 여행 경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편지의 첫 인사에도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바울의 서신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살전 3:1-10 · 빌 2:19-24 · 고후 1:1

신실한 지도력을 배우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은 가르침과 성품, 회중을 돌보는 일을 연결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이를 바울의 권면으로 받아들이지만, 많은 현대 학자는 바울의 직접 저작 여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저자 문제가 일반적으로 논쟁되지 않는 편지들에 담긴 전기적 증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모범은 지도자의 유명세나 만들어 낸 성격 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관심과 입증된 신실함에 주목하게 합니다.

딤후 4:12-16 · 딤후 1:5-7 · 빌 2:20-22

성경 참조

행 16:1-5 · 갈 2:1-5 · 살전 3:1-10 · 빌 2:19-24 · 고후 1:1 · 딤후 4:12-16 · 딤후 1:5-7 · 빌 2:20-22

출처

-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s 30-31, “Who Wrote Titus and I Timothy?” and “II Timothy and Possibilities about the Pastorals”.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 가르침, 환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일하고, 아볼로를 가르치는 데 참여하며, 집에서 교회를 맞이하고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은 여러 도시에서 이어진 두 사람의 공동 사역을 보여 주지만, 모든 이동이나 위험을 겪은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일하기

사도행전은 본도 출신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에 관한 글라우디오의 명령 이후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같은 직업을 가졌기에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합니다. 그들의 작업장은 선교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생업과 대화, 여행과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연결된 일입니다.

행 18:1-3

은사 있는 교사가 성장하도록 돕기

에베소에서 부부는 아볼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유창하고 지식이 있지만 여전히 배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건은 아볼로를 부족한 점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교정을 보여 줍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두 참여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본문은 안수식을 묘사하지 않으며 후대의 모든 교회 직분 논쟁을 결론짓지도 않습니다.

행 18:18-28

집을 열고 목숨을 걸기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라 부르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일에 감사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이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들의 모범은 가정이 환대와 양육의 장소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그렇다고 여행에 관한 불확실한 재구성을 상세한 전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롬 16:3-5 · 고전 16:19

성경 참조

행 18:1-3 · 행 18:18-28 · 롬 16:3-5 · 고전 16:19

출처

-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루디아: 들음, 환대, 새로운 공동체

사도행전은 루디아를 두아디라 출신 자주색 옷감 상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메시지에 응답하며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그녀의 환대는 형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강가에서 듣던 사람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성문 밖에서 기도하려고 모인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가 바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녀의 직업과 출신 도시를 밝히지만 혼인 여부, 정확한 재산, 종교적 이력 전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전하거나 삽화로 그릴 때도 이 침묵을 존중해야 합니다.

행 16:11-14

문을 연 가정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이 세례를 받은 뒤, 그녀는 여행자들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본문은 믿음이 환대라는 실제적인 형태를 취함을 보여 줍니다. 가정의 세례가 후대의 세례 관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본문은 집안 구성원이나 나이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 낸 세부 사항으로 이 더 넓은 문제를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행 16:15

계속되는 격려의 장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를 방문하고 신자들을 격려한 다음 떠납니다. 이처럼 그녀의 집은 공동체의 모임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녀에게 이후의 구체적인 직분을 부여하거나 후속 활동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이야기를 꾸미지 않고도 그녀의 결정적인 기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 주의 깊은 들음,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 집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을 연결합니다.

행 16:40 · 빌 1:3-7

성경 참조

행 16:11-14 · 행 16:15 · 행 16:40 · 빌 1:3-7

출처

-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디도: 이방인의 참여와 어려운 화해

디도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리스인 동역자, 고린도와의 관계를 중재한 신뢰할 만한 사람, 나눔을 조직한 동반자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무할례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도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논쟁 속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은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으며, 그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개인적인 사실은 이방인 신자들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이 편지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의 서로 다른 방문들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디도의 역할을 이용해 특정 연대기적 재구성이 확실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갈 2:1-10

어려운 소식을 전하기

고린도후서는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의 불안과, 디도가 고린도인들의 반응을 전했을 때 느낀 안도감을 기록합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한 헌금에도 관여합니다. 그는 단순한 전달 수단 이상입니다. 바울은 그의 관심과 동역을 칭찬합니다. 이 본문들은 교회 안의 화해에 따르는 감정적 수고와 책임 있는 관리를 보여 줍니다.

고후 2:12-13 · 고후 7:5-16 · 고후 8:16-24

돌봄, 가르침, 진실성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그레데에서의 사역, 장로의 임명, 건전한 가르침, 실제적인 선행을 제시합니다. 목회서신을 바울이 직접 썼는지는 학계에서 논쟁되며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은 이를 옹호합니다. 이 논쟁은 명시해야 합니다. 자료 전체에서 기독교 지도력의 기준은 설득력 있는 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와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입니다.

딤후 1:5-9 · 딤후 2:11-14

성경 참조

갈 2:1-10 · 고후 2:12-13 · 고후 7:5-16 · 고후 8:16-24 · 딤후 1:5-9 · 딤후 2:11-14

출처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Pauline Letters chronology
Pauline Letters chronology: Acts, the letters, dated external anchors, and explicitly qualified reconstructions.
-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30, “Who Wrote Titus and I Timothy?”.

뵤뵤: 섬김, 관대함, 신뢰

바울은 겐그레아의 뵤뵤를 신뢰할 만한 일꾼 또는 사역자이자 후원자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합니다. 뵤뵤가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견해는 이 추천에서 나온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론이며, 편지에 명시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된 선교의 동역자

로마서 16:1-2는 뵤뵤가 겐그레아 교회에 속해 있다고 밝히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녀를 환영하고 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녀가 자신과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선교를 지탱한 관계망 안에 여성의

실제적인 섬김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가족사, 정확한 재산 규모, 책임의 전체 범위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롬 16:1-2

그녀에게 사용된 명칭이 보여 주는 것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는 일꾼, 사역자, 집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당시의 정해진 교회 직분을 가리키는지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후원자라는 설명은 상당한 도움을 가리키지만, 그 도움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두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실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녀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존중하며, 짧은 추천문에 현대의 직분 범주를 그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롬 16:1-2

편지와 함께 사람도 맞이하기

로마서 16장 첫머리의 추천은 뵈비가 편지 전달자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전달 경로나 그녀가 로마서를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실제 요청은 환영과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빛어진 공동체는 낯선 신자들을 실제적인 돌봄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섬김을 인정하며, 소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롬 16:1-2 · 롬 15:7

성경 참조

롬 16:1-2 · 롬 15:7

출처

- The Pauline letters
-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오네시모: 형제로 맞아들여지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간청의 중심인물이며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편지는 그가 도망자였다고 확정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도 서술하지 않습니다.

간청에서 시작하기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개인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를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잘 못이나 빛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제안합니다. 이 진술들은 앞선 이별의 경위를 서술하거나 절도를 확정하거나,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에게 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익숙한 도망 노예 이야기는 재구성이며 빌레몬서에 직접 서술된 사건은 아닙니다.

몬 1:10-19

불평등한 세상에서의 형제 관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노예라는 범주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 관계를 통해 기존 관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를 직접 선포하거나 법적인 해방을 보고하

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읽기는 노예제의 폭력을 인정하고, 편지에서 사회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착취에 대한 승인으로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몬 1:15-21

연결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기록

골로새서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그를 수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겹치는 이름들은 두 편지를 연결하지만, 한 번에 발송되었다거나 두 사람이 동일한 전달자 역할을 맡았다거나 특정 경로와 감옥 도시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재구성이 열린 상태로 남아 있어도 실천적 도전은 분명합니다. 환영은 해로운 대우를 그대로 둔 채 다정한 말만 건네는 일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골 4:7-9 · 몬 1:17-21

성경 참조

몬 1:10-19 · 몬 1:15-21 · 골 4:7-9 · 몬 1:17-21

출처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에바브로디도: 값비싼 섬김과 존귀한 귀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신자들의 지원을 바울에게 전했고 섬기는 중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인 칭찬과 함께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골로새와 관련된 동역자 에바브라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공동체의 선물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의 사자이자 바울의 필요를 돕는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교회의 선물을 전달하므로, 편지 속 재정적 동역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형제, 동역자, 함께 군사 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명칭들은 헌신적인 섬김을 존중하지만, 편지의 정보 너머에 있는 공식적인 전기나 가족 배경, 정확한 여행 순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빌 2:25 · 빌 4:14-18

질병은 실패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렸고, 빌립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바울은 그의 회복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가 죽었다면 겪었을 슬픔도 인정합니다. 본문은 질병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사역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함, 멀리서 느끼는 염려, 회복에 대한 감사, 섬김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감정의 대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빌 2:26-28

존중받는 귀환

바울은 교회에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요청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사명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범은 같은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과 다른 사람을 향한 디모데의 관심에 이어집니다. 공동체가

조용히 대가를 치르는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사역자들을 돌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를 에바브라와 혼동하거나 다른 동역자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부여하지 마세요.

빌 2:5-11 · 빌 2:29-30 · 골 1:7

성경 참조

빌 2:25 · 빌 4:14-18 · 빌 2:26-28 · 빌 2:5-11 · 빌 2:29-30 · 골 1:7

출처

- The Pauline letters
-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유니아: 존중받는 신자와 논쟁적인 표현

바울은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함께 갇혔던 사람들,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존중합니다. 유니아는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됩니다. 바울이 두 사람을 사도들 가운데 포함하는지,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로 설명하는지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인사말이 알려 주는 사실

로마서 16:7은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초기 그리스도인 관계망 안에 놓고 그들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친족 표현은 가까운 가족보다 동족인 유대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배우자를 밝히거나 투옥의 경위를 서술하거나 믿게 된 시점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말은 완전한 재구성 전기를 뒷받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중요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롬 16:7

표현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린다 벨빌은 그리스어 용례와 해석사를 근거로 이 표현이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뛰어난 사도들 가운데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이클 뷰러와 대니얼 윌리스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해석을 옹호합니다. 이는 유니아의 성별에 관한 질문과는 별개입니다. 포함하는 해석을 택하더라도 사도라는 말의 범위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그녀를 열두 사도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롬 16:7

본문을 넘어 주장하지 않으면서 존중하기

사역 직분을 논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니아를 지워 버리거나 한 구절을 완전한 교회 헌법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 논증들을 정확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께 충성했고 그로 인해 고난을 겪은 신자들에게 바울이 공개적인 존경을 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 선교가 가장 유명한 남성 인물들만의 활동이었다는 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롬 16:7 · 롬 16:1-16

성경 참조

롬 16:7 · 롬 16:1-16

출처

- The Pauline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 Junia and the apostles: the inclusive reading

Linda Belleville, “A Re-examination of Romans 16.7 in Light of Primary Source Materials,” *New Testament Studies* 51 (2005): 231–249.

- Junia and the apostles: the exclusive reading

Michael H. Burer and Daniel B. Wallace, “Was Junia Really an Apostle? A Re-examination of Rom 16.7,” *New Testament Studies* 47 (2001): 76–91.

다운로드한 학습 자료는 인터넷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처 링크를 열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pauls-coworkers>

© Pauline Letters · CC BY 4.0 · MIT

다운로드 가능한 상호작용 자료의 자체 제작 코드는 MIT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글과 이미지는 각각 명시된 재사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 재사용 조건